

도심 떠나 천년 숲서 만나는 '인문캠프'

시민행성, 월정사에서 8월 28~30일 '나눔' 주제로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은 한국 대표적 명찰 오대산 월정사에서 '나눔'을 주제로 제2회 인문캠프를 연다.

'가장 빛나는 것을 당신에게 주었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인문캠프는 8월 28~30일까지 3일간 월정사 템플스테이 공간을 비롯해 전나무 숲길, 상원사 등에서 이뤄진다.

인문캠프는 <시민행성>의 정기 행사로, 참가자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인문캠프에서는 월정사 주지 정법스님 특강을 비롯해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희경 문학네트워크 연구원이 '선물의 공동체'를,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마음이 마음을 넘어서는 일'을, 이형대 고려대 교수가 '이야기의 보고-오대산이라는 자

리'를 주제로 각각 강연하며, 인문학자와 시인 이원 등이 인문학 특강과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끈다. 또한 국악그룹 '숨'의 공연과 음악평론가 송현민의 해설이 어우러진 '천년의 숲' 음악회도 예정돼 있다.

<시민행성>은 "나눔"을 통해 우리 시대와 개인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민행성>은 인문캠프에 이어 8월 31일 강원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3회 청소년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잊지 못할 나의 선물 목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청소년 지혜학교에는 관성적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이내나 기자

학부모·자녀 함께하는 감정 조절 프로그램

무안 봉불사서 진행... 포교원 인증 프로젝트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명상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무안 봉불사(주지 지오)는 7월 26일 봉불사의 '명상센터 숲'에서 학부모와 청소년 20여 명을 초청해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명상과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무안 봉불사(주지 지오)는 7월 26일 '명상센터 숲'에서 학부모와 청소년 20여 명을 초청해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명상과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청소년 문제를 진단 및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인 '청소년 마음등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프로그램은 △호흡과 춤 △이완 명상을 △감정다루기와 상담 △부모와 아이들 간 소통의 장 △화해의 장 △저녁 공양 요리 대회 △레크리에이션 △비폭력 대화와 역할극 등으로 마련됐다.

지오 스님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참가한 청소년들의 낯빛은 처음엔 어두웠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얼굴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회향하는 순간은 모두가 환한 모습으로 다음을 기약했다"고 말했다.

이내나 기자

마가 스님, 마음치유사 과정 개설

동국대평생교육원서 3월 4일부터

마음치유사 양성을 위한 무료 공개강좌가 열린다.

한국마음치유협회(회장 마가)는 8월 24일 오후 2시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마인드힐링 지도사 및 방과후 명상학교 지도사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마인드힐링지도사는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치유와 예방, 교육과 수련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템플

스테이와 복지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정이다.

방과후 학교 명상지도사는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주의·집중·기억력을 강화시켜 학습 효과를 내게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자격 과정이다.

각 강좌 모두 총 30주과정으로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2)2260-3728

이내나 기자

“비우고 버리는 행복한 삶 살겠습니다”

한마음과학원, 어르신위한 '행복한사계절' 회향

“어려부터 이 멋진 표범을 모르고 육신을 그냥 버린다면 참 원통할 거예요. 원통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원통하고말고요! 남 날 떠나서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그냥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먹고사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한 철 쉼캠프하러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 철 쉼캠프하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도리를 알아서 세세생생 끝간 데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문제니까요.” (대행 스님 법문 중)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행복한 사계절'을 진행했다.

노년은 우리 인생에 있어 결실을 맺는 시기다. 누구나 나이를 먹기에, 노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평균나이 74세의 어르신 36명이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에 모였다. 74세라면 대한민국 광복, 민주화 과정 등 역사의 시절을 지내온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라 말할 수 있다. 가정과 사회를 위해 '나'를 잊고 살아온 어르신들이 인생의 말미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할지 고민을 했다.

한마음과학원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행복한 사계절'을 진행

평균연령 74세 36명 참가
조계종 포교원과 시범적 운영
음악·유희·미술활동 등 참여
내면 알아차리고 공감능력 길러

했다. '행복한 사계절'은 한마음과학원과 조계종 포교원이 노인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음 공부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남녀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어르신들은 7주 동안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김영래 고려대 연구교

수, 박소진 연세대 강사, 이경옥 원광디지털대 교수, 황수경 동국대 강사와 함께 △사바의 인연-소중한 만남 △감사하기-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의 보물창기 △마음도 다시 한번-용서와 화해 △내가 살던 고향은-동심을 찾아 △당신은 모르실거야, 내 마음! △타임머신-소원을 말해 보세요 △마음 꽃을 피워요-변화하는 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매회 명상을 하고 내면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증장시켜 가족, 친지 등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은 교육시간 동안 음

악, 유희, 미술, 조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매주 변화하는 자신을 위해 실천하고 싶은 것을 정해 일상에서 체험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공부하며 느낀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인공팀의 김정옥(77·여) 어르신은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그동안 나에게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심팀 명을식(78·남) 어르신은 "7년의 교육 통해 옛 추억을 살릴 수 있어 좋았고, 인생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버릴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중한 인연들과 마지막까지 정진하며 비우는 삶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향식에는 주지 혜원 스님이 참석했다. 스님은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선업이란 악업이든 되돌려 받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마음공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과학원은 "평균나이 74세의 어르신들은 남존여비가 강하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성장해 자신을 억누르며 성장해 왔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나이가 들면서 위축되는 부분을 좀 더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신감을 찾아 비우고 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푸른 눈’의 외국인도 반한 한국 사찰 체험

대흥사·골굴사,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체험 콘텐츠인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범각)는 7월 26~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 소속 원어민 교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캐나다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과 해남 교육지원청이 양해각서를 맺어 매년 실시하는 교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지도법사 현진 스님과 함께 사찰문화해설, 아침예불, 오강명상, 운력, 108배하며 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이번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니콜씨(28,여)는 "천년이 넘는 오래된 사찰에서 1박2일 머물며 수행자를 만나는 것이 경

이로운 체험이었다"며 "많은 곳을 여행 다녀보았지만 한국에서의 템플스테이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프로그램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선무도 분참인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에서는 외국인 태권도 선수들이 선무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움직이는 선의 숨결 선무도 템플스테이'는 경주국제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미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등의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선수단이 골굴사를 찾았다. 이들은 선무도 공연 관람과 체험을 하며 한국 사찰문화와 불교 비전 미술 선무도를 배웠다.

독일의 한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와는 다르게 온 몸을 사용하며, 부드러운 움직임이 조화된 선무도는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아주 좋은 수행법"이라며 "선무도의



7월 11~16일까지 경주 국제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단이 골굴사에서 선무도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있다.

매력에 흠뻑 빠졌다. 다시 골굴사를 찾아와 선무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선무도 대금강문문주)은 "현재 국내외 여러 미술단체와 활

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많은 단체들이 골굴사를 찾아 선무도를 수련하고 있다. 선무도를 통해 불교미술의 깊은 수행 단계를 깨달아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8월 25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8월 2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개강일시: 2014년 8월 18일 (매주 월)◀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중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 ④ 체 의 식 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개념의 법(法) · 전범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